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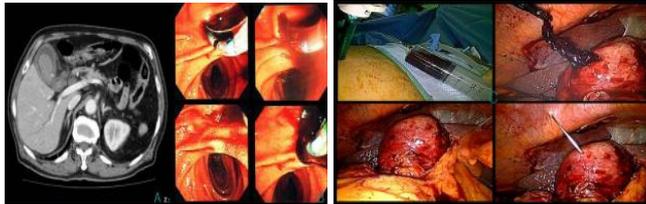
■ S-191 ■

역행성 담도 내시경을 통해 진단된 혈담즙증을 동반한 급성 출혈성 담낭염 1예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충주병원 소화기내과

*정소희, 김세진, 김원학, 오세원, 김영중, 임중구, 이태의, 기승식

서론: 출혈성 담낭염은 담낭벽의 국소 염증 및 괴사에 의한 출혈을 동반하는 드문 담낭질환으로 담도 및 장관내 출혈을 일으키거나 괴사성 담낭염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의 조기 진단 및 수술적 치료가 중요하다. **중례:** 83세 남자환자는 특별한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당일 새벽 갑자기 발생한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입원하였다. 내원 당시 혈압 130/80 mmHg, 맥박수 80회/분, 호흡수 20회/min, 체온 36.0℃였으며, 복부 진찰 소견에서 상복부로 직접 압통 관찰 되었다. 혈액 검사 상 AST/ALT 566/806, T-bilirubin 2.4, CRP 1.35였으며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 상 담낭의 벽이 두꺼워져 있었으며 담석도 관찰되었다. 이상을 토대로 담석을 동반한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하고 우선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입원 3일째, 백혈구 증가 소견과 함께 상복부 통증 악화되어 시행한 역행성 담도내시경 검사 상 검붉은 양상의 액체가 관찰 되었고 내시경적 비,담도 배액법 시행하였다. 담도내시경을 통해 혈담즙증을 동반한 급성 출혈성 담낭염으로 진단 하에 응급 담낭절제술 시행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고찰 출혈성 담낭염은 급성 담낭염의 드문 합병증으로 출혈의 원인으로는 외상, 혈관질환, 담도계 악성 종양, 기생충, 약물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급성 담낭염의 진단으로는 초음파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 유용하며 출혈성 담낭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혈종의 양상이 진행 단계에 따라 담낭벽 내에 균일하거나 또는 비균일한 양상의 음영으로 관찰될 수 있다. 치료는 본 중례와 같이 조기 담낭제거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환자의 예후를 기대할 수 있겠다 **결론:** 이에 저자들은 급성 담낭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혈담즙증을 동반한 급성 출혈성 담낭염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S-192 ■

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술을 통한 담관 스텐트 삽입 후 호전된 담즙종 1예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내과학교실

*김재현, 박수희, 고통희, 최민호, 장현주, 계세협, 이진

서론: 담즙종은 담즙이 담도 외로 누출되어 간내 또는 간외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드문 질환이다. 수술이나 경피 담관조영술 등에 의한 의인성 담도 손상에 의한 경우가 많지만 복부 외상이나 담관 파열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며, 자발적 또는 다른 질환에 동반되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우상복부 통증과 열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췌장 두부암에 의한 담즙종을 진단하고, 경피 배액술과 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술을 통한 담관 스텐트 삽입으로 치료한 중례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중례:** 86세 남자 환자가 일주일 전부터 우상복부 동통과 열감이 있어 내원하였다. 10년 전 담낭에 담석이 있다고 들었으나 특별한 검사 없이 지내온 것 이외에 특이 병력은 없었다. 내원시 혈압 120/70 mmHg, 맥박 78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8℃였으며, 복부검사서 우상복부 압통과 반발통을 호소하였다. 장음이 항진되어 있었으나 촉진되는 종괴는 없었다. 복부 초음파와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간 좌엽 주위로 다량의 체액 저류가 보이면서 간내 담도와 총담관의 확장이 관찰되었으며, 췌장 두부에 종괴가 보여 췌장 두부의 악성 종양이 의심되었다. 경피 배액술과 항생제로 치료한 후 증상의 호전을 보였고, 체액 검사를 통해 담즙종으로 진단하였다. 하루 370에서 400 cc 가량의 배액이 지속되어 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근위부 총담관의 심한 확장과 원위부 총담관의 협착을 확인하고 원위부 총담관에 대해 스텐트를 삽입하였다. 배액량이 감소하면서 복부 CT에서 피막하 체액 저류가 감소하고 총담관의 확장이 줄어 낭종 조영술로 확인 후 경피 배액관을 제거하였다. 이후 증상 없이 안정하였으나 더 이상의 치료를 원하지 않아 퇴원하였다.